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포연자욱한 포진지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천둥같이 울리는 폭음은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다져진 증오와 분노, 참을김 없는 보복일념의 강렬한 메아리였으며, 멸적의 강철포신들에서 내뿜어진 시뻘건 불줄기는 가중스러운 원수들에게 가장 비참한 종말을 안기는 증엄한 철추였다.

지진이 일어난듯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에서는 우뢰가 울었으며, 흙먼지가 삼시에 포진지를 뒤감았다.

목표섬에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화광이 총천하고 향토면지가 락대쳐올랐다.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남해상의 5개섬과 조선인민군 주타격방향에 놓여있는 적들의 도시들과 군사대상물들, 반동통치기관들이 총체로 불바다에 잠기는듯 한 통쾌한 순간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한한 광경이요, 대단하고 대단히, 저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소,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조선것들을 저렇게 타격해야 하오, 첫 타격에 남조선것들의 대응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레도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칠 눈, 비명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하오, 우리 영웅한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총장머리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적들의 소굴에 무자비한 포병화력 타격을 들이대어 그속에서 더러운

원수들의 그림자도 찾아볼수없이 비자루질 하겠다는 리성국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호랑하게 웃으시며 결심이 좋다고,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이 리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조선인민군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일단 시작만 하면 단숨에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라 백두산혁명강군의 결전의지와 전투실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고 포병의 추모사격으로 조국통일의 승리를 경축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포병중시관, 포병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대전에서 인민군대의 무쇠주먹인 포병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쟁에서 포병의 활용은 작전과 전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포병 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령 지도를 받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포병전원들은 전투정치훈련에서 당의 5대훈령방침과 4대훈령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전쟁환경에 접근한 실전적훈련을 힘있게 벌려 수명결사옹위의 총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총대를 더욱 날카롭게 비뻬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이룩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돌격대에 만원한 대의진람중국 산하단위 조광세, 안광미, 평양도시설계연구소 설계원 리정국, 무역은행 부원 리지혜는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형제신구역상하수도관리소 노동자 김일심은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으며 해주사회급양관리소 지명원 김은주는 말겨린 혁명인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어버이상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대한 구상을 거어이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해주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명성희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열육의 정을 기울였다.
남산병원 의사 김철민은 반일제국원사용가족으로서 받아안은 당의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성의껏 바쁜 많은 지원물자를 여러차례 걸쳐 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전투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조국의 만년제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개조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제신성 산하단위 기술원 피래섭은 불심장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건설시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최명희는 고신당을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에 성의있는 지원을 하여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전선의 대면명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락한 승전에 심정의 박동을 맞추며 평안남도무역관리국 부원 안향은 온 가족의 지성이 어딘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는 소명을 맡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록 크나큰 영광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용 높이 받들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헌신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꾸알라 룸부르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최고 리사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은 《하나의 말레이시아》의 구호밑에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사회경제적발전은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과 귀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5 (2016)년 12월 1일

별 양